노동문학 속의 여성상

- 정화진과 방현석을 중심으로

이정희

노동문학 속의 여성상

- 정화진과 방현석을 중심으로

이정희

국문초록

노동문학 속의 여성상을 정화진과 방현석의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것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노동해방의 〈내일을 여는〉 투사' 형이 있다. 이 유형의 여성인물은 다시 '동지로서의 아내' 형과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으로 나뉜다. '동지로서의 아내' 형은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관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진지한 성찰의 결과로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은 남성작가의 누이 콤플렉스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해방에 대한 적극적인 전망을 열어가는 가운데 창조되었다.

둘째,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흔들리는 동지' 형이 있다. 이 유형의 여성인물들은 남성작가의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창조된다. 각성된 남성노동자의 내면갈등이 각성되지 못한 여성노동자에게로 투사되면서, 여성인물들은 긍정항/부정항의 이분법 중 부정항에 할당되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셋째,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 형이 있다. '신데렐라' 형은 현장출신 남성 노동자 작가의 투사(投射)로서 창조된 인물형인데, 남성 안의 부정적 측면이 타자로서의 여성에게 이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탕녀' 형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매혹과 혐오라는 양가감정이 투

영된 인물형으로서, 여성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과 결합되면서 창조된다. 이러한 '탕녀' 형은 여성이 서사가 응시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만 텍스트에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여성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여성상이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 속에서 침묵당하는 여성상이다. 가령, 정화진의 「쇳물처럼」(1987)이나 방현석의 「내딛는 첫 발은」(1988), 「지옥선의 사람들」(1990), 「또하나의 선택」(1991)에는 여성인물이 부재하거나 있다고 해도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 텍스트 속에서 여성이 침묵당하는 현상은 여성들이 사회의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소설 속에서 여성은 침묵당하거나, 침묵당하지 않더라도 오직 남성의 입을 빌어서만 말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긍정적인 여성상은 노동해방에 복무하는 여성상밖에 없었고, 나머지 여성상은 남성의 내면 갈등이나 부정적 속성, 성적 욕망이 투사(投射)된 결과로서만 형상화되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여성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수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노동문학의 출현 이전에 이미 1980년대 초반에 다수의 여성 노동수기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나온 수기들이나 남성노동자들의 수기들을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여성 노동수기가 이미 80년대 노동문학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남성작가의 노동소설이 안고 있는 여성형상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핵심어 : 노동해방의 투사형,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동지형,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 침묵당하는 여성상

1. 서론

노동문학[1]이 우리 문학사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장르로 자리잡은 것은 80년대에 접어들어서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식민지시대의 카프문학이나 산업화시대의 노동문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시각으로 노동현실을 다루는 문학작품이 주류적인 경향으로 대두한 것은 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물적 조건의 변화라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87년 민주화항쟁은 노동계급의 현실인식을 고취시켰고 그것은 노동쟁의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다. 노동자들은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강요되던 희생과 양보를 거부하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의 장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투쟁의 장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노동문학의 급증과 확산, 그에 따른 노동문학 논의의 폭발적 증가라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의 노동문학도 그 논의에 비하면 창작성과는 부진한 편이

---

1) 노동문학은 노동자의 시각으로 노동자의 삶을 다룬 문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동문학의 정의를 둘러싼 80년대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승엽은 "(노동문학이란) 노동자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현실이나 노동문제를 묘사하되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그 극복을 지향하는 문학"이라고 했고(「노동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민족문학』(풀빛, 1987) p.158), 조정환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쓴 글이라면 모두 노동자문학"이라고 했다. (「노동자문학의 현단계와 전망」, 『민주주의와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p.106) 또한, 김경원은 "노동문학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 획득되는 현실 과정에서 산출되는 문학"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문학은 이미 풍부한 현상으로서 정착된 노동자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생산 현장과 그 안에서의 제 관계 및 다양한 생활의 측면 등을 주로 소재로서 취하는 일정한 범위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리얼리즘문학의 하나"라고 했다. (「우리 시대 노동소설을 위하여」, 『문예중앙』1990 가을, p.353) 이훈은 "노동자소설은 노동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노동자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연관 속에서 취급한 소설"이라고 정의했으며(「노동자소설을 위하여」, 『문학과비평』1989 여름, p.353), 현준만은 "노동문학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발견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거기에 나타난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집단적인 움직임, 즉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얻어진 산물"라고 했다. (「노동문학의 현재적 의미」, 김사인 · 강형철 엮음,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푸른숲, 1989), p.292) 그리고, 임헌영은 노동문학을 정의할 때 노동자계층의 범위를 확대해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문학은 육체노동자만이 아닌 정신노동자까지, 공장노동자만이 아닌 부랑자, 일고용자, 빈민층 및 중소 상인, 봉급생활자까지도 다 과감히 노동자에 포함시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문학의 새 방향」,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한길사, 1986), p.191) 마지막으로, 백남천은 "이상적인 노동문학은 산업 현장 노동자에 의해서 조직화된 노동운동과 유기적 관련을 맺고 산업 현장 노동자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세계를 내용을 다룬 문학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한남대 석사논문, 1989) p.2)

다. 당시의 노동문학 논쟁은 창작 주체의 문제, 창작 내용의 문제, 노동자의 세계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카프문학 논쟁을 떠올리게 할 만큼 변혁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주요하게 부각된 논의였는데, 논의의 쟁점들을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노동문학이 성장하지는 못했었다. 사실 현장 출신의 노동자 작가들은 노동운동이라는 현안의 과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업 작가들에 비해 당연히 과작일 수밖에 없기도 했다.[2]

현장 출신의 노동자 작가들의 경우, 현실운동이 선차적인 과제라는 인식 때문에, 혹은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의 미비 때문에 일회적인 창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3] 더욱이 변혁운동의 현실태였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절필하는 경우도 생겼다.[4] 그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로는 방현석[5], 안재성[6], 김한수[7]

2) 김한수, 방현석, 안재성, 정화진의 작품을 제외한, 단행본으로 출간된 노동소설은 다음과 같다.
김하경 엮음, 『그래! 다시 하는 거야』(현장문학, 1995)
김하경, 『그해 여름』(세계, 1991)
원명희, 『바늘반지』(하늘땅, 1990)
이인휘, 『활화산』(세계, 1990)
이택주, 『늙은 노동자의 노래』(실천문학사, 1986)
정수리, 『늪』(두리출산사, 1992)
차주옥, 『함께 가자 우리』(실천문학사, 1990)

3) 당시 실천문학사에서 발행된 잡지『노동문학』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던 일군의 노동자 출신 작가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1987년에 화제작『쇳물처럼』으로 등단한 정화진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 창작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절필한 상태에 있다.

5) 방현석은 1961년 울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운동에 투신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이후 창작의 원천이 된다. 1988년『실천문학』에 단편「내딛는 첫발은」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창작과비평사, 1991)
방현석, 『당신의 왼편 1 · 2』(해냄, 2000)
방현석, 『십년간 1 · 2』(실천문학사, 1995)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작은책, 1999

를 들 수 있고, 지금은 절필 상태에 있지만 80년대 노동문학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될 수 있는 작가로는 정화진이[8]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방현석과 정화진은 각각 『새벽출정』(1989)과 『쇳물처럼』(1987)으로 평단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비단 이 작품들뿐만 아니라 80년대 노동문학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을 만큼 논쟁적인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다. 때문에 우찬제의 경우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과 그 운동성을 강철 같은 문체에 실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방현석 소설의 강점이요, 미덕"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소설의 이념은 자본 · 권

---

6) 안재성은 1960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 축산과에 입학했다. 3학년 재학 중 광주민중항쟁을 만나 서울에서 시위를 기도하다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제적되었다. 1986년「동지」를 발표한 이후, 여러 편의 중 · 단편과 장편을 상재했다.
안재성, 『사랑의 조건』(한길사, 1991)
안재성, 『어느 화가의 승천』(새길, 1992)
안재성, 『타오르는 광산』(돌베개, 1988)
안재성, 『파업』(세계출판사, 1989)
안재성, 『피에타의 사랑』(웅진출판사, 1993)
안재성, 『환희의 나날』(새길, 1993)

7) 김한수는 1965년 전남에서 태어나 1987년『전환기의 민족문학』에 산문시「아버지」외 3편을 발표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1988년 『창작과비평』에 〈성장〉을 발표하면서 등단, 지금까지 여러 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는 1981년부터 노동자생활을 해 오다가 92년부터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김한수, 『그대 기차 타는 등뒤에 남아』(문학동네, 1998)
김한수, 『봄비 내리는 날』(창작과비평사, 1992)
김한수, 『양철지붕 위에 사는 새』(문학동네, 2001)
김한수, 『저녁밥 짓는 마을』(문예마당, 1995)
김한수, 『하늘에 뜬 집』(실천문학, 1997)

8) 정화진은 1960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그 후 야학활동으로 세계관의 변화를 맞게 되고, 그것은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단편「쇳물처럼」(『민족문학의 현단계』)을 발표하면서 창작에 입문하게 된다.
정화진 외, 『쇳물처럼/성장/살아있는 무덤 외』(동아출판사, 1995)
정화진, 「겨울, 다시 서는 길목」, 『서울, 그 어느 쓸쓸한 사랑』(지리산, 1991)
정화진, 「모정의 그늘」, 『그 무더웠던 여름날의 꿈』(민맥, 1992)
정화진, 「사춘기」, 『창작과비평』1989 가을
정화진, 『철강지대』(풀빛, 1991)

력 · 법 · 제도 · 교육 · 여성 · 정보 ·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 인식과 중층적으로 결합되면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고평했다.[9] 또한, 김경원의 경우에는 "정화진의 여러 단편소설은 1989년을 전후로 한 소위 '탄압 국면'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며, '각성하는 노동자' 형상을 통해 내면의 동요를 극복하고 더욱 꿋꿋하게 현실 변혁에 복무하는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의 전형을 창조하고 있다."며, 정화진 소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10]

이러한 평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를 열망하는 젊은 비평가들이 방현석과 정화진에게 거는 기대는 컸고 창작자 자신의 노동문학에 대한 신념도 남달랐다. 정화진은 자신의 문학성장기를 쓰는 자리에서 문학이야말로 해방의 무기라는 신념을 분명하게 표명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희망의 문학이 될 수 있기 위해선,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 그 날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나는 끊임없이 나의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함에 게을러서는 안 될 일"[11]이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던 정화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이 문학이고 문학이 투쟁이었던 당시 노동문학가들의 초상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노동문학가의 초상은 비단 작가 정화진의 것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렇다면 여성상을 중심으로 정화진과 방현석의 작품세계를 다시 읽어낼 때, 그것은 기왕의 평가들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그 자체로서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대개의 노동소설이 긍정적인 노동자상을 창조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도, 그것이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각성과 그에 따른 필연적 승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물이란 작품의 주제를 응축하고 있는 동시에 작가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성상을 중심으로 정화진과 방현석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는 지금까지 문학

9) 우찬제, 「계급 · 민족 · 권력」, 『욕망의 시학』(문학과지성사, 1993), p.175
10) 김경원, 앞의 글, p.261
11) 정화진, 「(성장기) 문학을 해방의 무기로 삼고저」, 『새벽출정』(녹두, 1990), p.65

정전 속의 여성이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독자로서의 여성이 '동의하는 독자가 되기보다는 저항하는 독자'가 되어 문학작품이 요구하는 동의를 거절함으로써, 주어진 동일성과 결별하고 남성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가운데 여성 고유의 경험을 복원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했다.[12]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남성노동자와 여성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한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장이 될 것이다. 이는 해방의 전망을 제시하는 노동문학이 여성에게도 동일한 전망을 열어주고 있는지 가늠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2. 정화진 · 방현석 소설 속의 여성상

정화진과 방현석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노동운동에의 투신 여부이다.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해방의 전망을 열어가는 여성상은 '노동해방의 〈내일을 여는〉 투사'로, 노동운동의 주변부에서 갈등하는 여성상은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흔들리는 동지'로, 노동운동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상은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로 유형화될 수 있다.

1) 노동해방의 〈내일을 여는〉 투사

노동해방의 〈내일을 여는〉 여성투사는 다시 '동지로서의 아내/연인' 형과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지로서의 아내/연인' 형은 노동해방을 위한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들로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남성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흔들

12) 조나단 컬러, 「여성으로서의 독해」,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문예출판사, 1988) p.179

림 없이 투쟁한다. 반면,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은 노동해방을 위한 장에 나서기는 하지만, 오빠 같은 남성노동자에게 다분히 연약한 누이처럼 의지한다.

(1) 동지로서의 아내, 동지로서의 남편

방현석의 「내일을 여는 집」(1989)에는 동지로서의 아내상이 그려져 있다. 대성중공업의 12년차 경력노동자인 성만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처음에 아내 진숙은 다른 곳에 취직할 것을 종용하면서 복직운동에 반대한다. 그러나 성만이 출근투쟁 과정에서 겪는 회사측의 비인간적 처사를 지켜보면서, 진숙은 가족 지원투쟁에 앞장서는 각성된 여성으로 거듭난다. 만삭의 임부였던 진숙은 회사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해고노동자들 틈 속에서 혁혁한 활약상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탁아소 〈내일을 위한 집〉과 인연을 맺게 된다.

진숙은 〈내일을 위한 집〉이 개설한 주부강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지배자적 자세를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113)는 강연을 들은 이후로는, 이 대목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것은 진숙이 특별히 권리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수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 아래 진숙이 생계부양자를 자처하는 데서도, 복직투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만이 의기소침해지는 것과 달리 진숙은 복직에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서도 진숙의 순수성과 낙관성은 확인된다.

복직투쟁 과정은 진숙과 성만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그들은 자기 성장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성만은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를 그 역시 회사와의 싸움과정을 통하여 알게〉(113) 되었고, 진숙은 가족주의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좀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가정에서의 성역할과 여성억압, 그리고 그 사회적 본질 등에 관련한 문제가 풍부한 세부묘사로 심도 있게 제기되고 탐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투쟁과 노동자의 일상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여성해방의 과제를 구체적 실감으로 다루어 주고 있다."[13]는 평가나, 비록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 가정에서의 민주적 관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서 남녀의 대립구조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계적 평등주의자들의 한계를 성큼 벗어나 있다."[14]는 평가는 온당하다.

「내일을 여는 집」이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과제를 적절하게 교직해 동지로서의 아내상과 남편상을 형상화했다면, 1989년 전후를 배경으로 백상중기의 노조건설 과정과 동남전자의 파업투쟁을 그리고 있는, 정화진의 장편『철강지대』(1991)에는 동지로서의 남녀 연인상이 구현되어 있다.

백상중기의 노동자 중철과 동남전자의 노동자 명진은 동남전자의 파업농성장에서 만난다. 파업 지원투쟁을 나갔던 중철은, 구사대의 폭력에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부터 봐 주세요.〉(47)라고 말하던 명진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후 중철의 꾸밈없는 구애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동지적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물론 명진은 자신을 〈동지로서뿐만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도 뜨겁게 사랑해 주는 사람〉(177)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중철과 명진을 이어주는 신뢰의 끈은 동지적 관계에서 나온다. 명진은 중철에게 동지적 연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도 동지적 연인이 된다. 중철이 상록회를 중심으로 노조를 건설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동남전자의 위원장으로서 노조활동에 헌신하는 것이다.

참고로 밝혀두자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명진, 경애, 재희, 진숙 등 동남전자의 여성노동자들은 누님이 과거 원풍모방에서의 생활과 투쟁과정을 거울삼아 창조해

13) 김이구,「염결함, 뜨거움, 과학주의 - 80년대 노동소설과 방현석의 소설」,『채영주·공지영·방현석』(동아출판사, 1995), p.550

14) 강미숙·김성희,「현단계 노동문학의 여성문제 인식」,『여성과사회』1990 창간호, p.238

낸 인물군이었다. 그들의 현장 안팎에서의 삽화들 또한 누님의 애정어린 작업이었다. 재고과정을 통해 업종을 모방에서 전자, 의식수준을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다양한 수준으로, 그리고 삽화의 일부를 바꾸었지만 그 작업이 가능했던 것 역시 누님이 애초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인물들의 성격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 '작가후기' 중에서

'작가후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지적 연인상인 명진의 탄생은 장남수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장남수는 과거 원풍모방 투쟁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서, 노동수기 『빼앗긴 일터』(1984)의 저자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초창기를 온몸으로 일구어온 여성노동자 장남수의 시각이 반영됨으로써, 명진 같은 건강한 여성인물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철강지대』를 제외하면 정화진의 작품세계 속에는 긍정적인 여성인물형이 거의 없다. 정화진은 장남수의 영향 속에서 오직 『철강지대』에서만 긍정적인 여성노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누구의 눈으로 세계를 보느냐가 인물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소가 『철강지대』의 장편으로서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철강지대』는 "파업투쟁만을 주요 줄거리로 엮지 않고 거기에 노동자들의 사랑이야기를 연결시킴으로써 더 풍부한 현실성과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15]는 평가에서처럼, 중철과 명진의 사랑이야기가 소설전개에 흥미와 실감을 더해준다. 그러나 백상중기의 노조건설 과정과 동남전자의 파업투쟁이 파노라마식으로 연결되면서 소설의 통일성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철강지대』는 여성노동자의 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장편소설의 생명인 통일성의 측면에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구성의 문제이

15) 이병훈, 「노동 장편소설의 최근 변모와 성과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 『한길문학』 1991 여름, p.88

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화진의 시각과 장남수의 시각이 각각 씨줄과 날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내의 균열과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장남수의 시각이 건강한 여성노동자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면, 정화진의 시각은 노동해방 투사인 건강한 남성노동자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노동해방의 과제 속에서 수단화되는 여성상을 창조하는 데도 일조한다.[16]

반면,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이러한 균열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구도가 아귀가 맞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만은 노동운동 과정 속에서 여성해방의 필요성에 눈뜨게 되고, 진숙은 여성해방의 이념에 눈뜨면서 노동자 가족투쟁에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면서, 작가 방현석은 동지로서의 아내상과 남편상을 창조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숙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남성작가 방현석의 여성해방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

(2)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오빠로서의 남성투사**

방현석의 「새벽출정」(1989)은 여성노동자들의 폐업철폐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세광물산이 노조건설과 함께 위장폐업을 단행하자, 8년차 경력노동자이자 노조위원장인 미정은 150여 일 동안 폐업철폐 투쟁을 주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자가 늘어나고 조합원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자, 미정은 적지 않은 내면갈등을 겪게 된다. 조합원들 앞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지만, 든든한 오빠 같은 선홍정밀을 방문해서는 미정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건 완전히 땡깡이구만."

16) 이는 〈 3.2. 남성의 성적 욕망이 투사된, 금기와 매혹 속의 탕녀〉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홍위원장이 안타까운 웃음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선홍정밀 아니면 어디 가서 땡깡을 부려요. 왜 위원장님도 조합원들 시켜서 우리 끌어낼래요. 노동청처럼."

"어허, 또 운다 울어, 다 큰 처녀가. 누가 안해준다 그랬어요, 왜 그래."

"울긴 누가 울어요. 이 따위로 우리가 울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미정의 음성엔 눈물이 묻어났다. (62)

미정이 농성자금의 대부를 요청하자, 선홍정밀 노조는 이를 기꺼이 수락한다. 선홍정밀과 세원물산은 〈피로 맺은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세원물산 노조의 초창기 시절,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회사측이 구사대의 폭력으로 대응하자 선홍정밀 노조는 지원투쟁을 전개해 협상을 성공시킨다. 성난 군중들 앞에 세광물산의 부사장과 상위관리자들을 끌어내어 선홍정밀 노조가 성사시킨 합의안은 《(1) 구사대 폭력에 대한 공개 서면사과 및 부상자 치료비 부담 (2) 구사대 해체 및 평화농성 보장 (3) 노조인정 및 성실교섭〉(69)의 세 가지이다. 구사대의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던 세광물산 여성노동자들에게 선홍정밀 노동자들의 출현은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협상이란 지극히 낭만적인 시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1982)에는 회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선홍정밀 노조의 단 한 번의 위협으로 세광물산측이 쉽게 백기를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후에 위장폐업이라는 더 큰 음모가 준비되긴 하지만, 세광노조의 설립 후 이루어진 노사간의 첫 힘겨루기였다는 점에서 세광물산측의 대응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다른 사업장 노조가 개입하여 해결한다는 구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방현석 소설의 한 특징인 낙관주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이 컴플렉스 내지는 오빠 콤플렉스의 반영이기도 하다. 순결한 누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선홍정밀로 하여금 세광물산의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고, 든든한 오빠가 있다는 의존심리는 노조위원장 미정으로 하여금, 파업자금 마련을 위한 어린 조합원들의 커피판매에 대해 〈니들이 거리의 여자들이야? 애들을 창녀로 만들 작정이야?〉(73)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선홍정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피로 맺은 동맹〉 선홍정밀과 세광물산을 움직이는 힘은 각각 순결하고 연약한 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누이 컴플렉스와 든든하고 따뜻한 오빠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오빠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의 평가들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다. 신승엽은 「새벽출정」의 성과를 "투쟁의 시야가 하나의 사업장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찾았고 "이웃 선홍정밀 노조의 연대투쟁도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17] 또한 윤지관은 "위원장 미정의 넓은 이해력과 책임감, 그에 대한 동료 조합원들의 신뢰, 그리고 이웃 공장인 선홍정밀 노조원들과의 '피로 맺은' 연대의식 등이 작가의 애정 어린 어조와 절제된 언어에 의해 표현되어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으며[18], 이훈은 「새벽출정」이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대의를 노동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19]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세광물산과 선홍정밀의 연대투쟁이 누이 컴플렉스와 오빠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2)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흔들리는 동지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흔들리는 동지로서의 여성상은 정화진의 「양지를 찾아서」(『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 풀빛, 1992), 「사춘기」(1989),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1989)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세 작품의 공

17) 신승엽, 「소시민적 죄의식을 넘어 현실주의의 큰 길로」, 『사상문예운동』1990 봄, p.188

18) 윤지관, 「폭력시대와 소설의 리얼리즘」, 『오늘의 소설』 1989 상반기, p.460

19) 이훈, 앞의 글, p.357

통점은 각성된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각성되지 못한 여성노동자에게로 투사된다는 데 있다. 투사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각기 다르지만,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여성인물이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양지를 찾아서」에서는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현장을 떠나온 명수의 내면갈등이 아내 춘옥에게 투사되고 있다. 명수가 어떤 이유로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지만, 현장을 떠나온 이후 명수는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린 채 생업에만 전념한다. 그러던 중 아내 춘옥이 노조활동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옛 동지의 말을 전해 듣고는, 심한 부끄러움과 함께 광포한 열정에 사로잡혀 아내 춘옥을 심문한다.

"왜 그랬지?"

"……"

춘옥은 선뜻 대답을 못한다. 입을 모질게 다문 채 손끝으로 치맛단만 만지작거렸다. 가슴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일고 있었다.

"왜 그랬냔 말이야!"

명수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벼락처럼 터진 그의 고함에 춘옥은 뒤로 튕겨 나갈 듯이 놀라 어깨를 움찍거렸다.

"모두가 다 미워!"

두려움의 끝으로 치달은 춘옥도 발악적으로 악을 썼다. (99)

춘옥이 드러내는 노조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과 증오는 어쩌면 명수 자신의 것일 터이다. 다만 그것이 명수의 경우엔 체념과 포기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춘옥의 경우와 달라 보일 뿐이다. 비록 현장을 떠났지만 자신이 한때 열정을 바쳤던 현장에 오명을 씌우지는 않겠다는 결의가, 명수의 의식에 떠올라 있는 것이라면, 명수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열정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울분은 춘옥을 통해 대리 표출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명수가 춘옥과의 갈등 이후 자기 내면의 갈등을 돌아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타진해 본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춘옥

과 명수의 충돌은 명수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상반되는 힘들의 충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반되는 힘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명수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성노동자의 내면갈등이 아내에게로 투사되는 경우는 「사춘기」(198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무장 승배는 노조활동에 대한 열의와 회의를 동시에 경험하는데, 그 회의는 아내 인순의 암묵적인 비난 속에서 대리 표출된다. 인순은 생사를 오가는 딸아이를 혼자 돌보아야 했던 일로 승배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노조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생활 전체를 희생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그러한 불만은 어쩌면 승배 자신의 것일 터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다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려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나, 조합원들의 작은 불만 토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승배의 회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아내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 승배는 다시 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내 한두 해 하고 말 일도 아닌데 아내가 버텨주기만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게도 느껴진다. 승배는 또 한 대의 담배를 빼어 물고 한 손으로 머리칼을 마구 솎아낸다.
>
> 하긴, 나는 훨씬 나은 편일지도 모르지.
>
> 승배는 마누라의 등쌀 때문에 노조 일도 제대로 못 해먹겠다고 여자의 좁은 '소갈머리'를 맹렬히 난도질해대던 주안의 어느 조합 사무장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169)

〈아내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169)란 승배의 질문은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아이를 둘러싼 아내와의 갈등은 〈성아 때문에 신경쓴 것만도 피곤한데 당신까지 신경쓰게 할 거예요?〉(170)란 아내의 화해 요청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노조활동에 대한 회의도 위원장 동호와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언제고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승호는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성인물의 갈등이 여성인물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 혹은 여성다움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비규범적인 것, 즉 타자로서 존재해 왔다는 데서 기인한다. 긍정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해 온 남성 혹은 남성다움에는 여성에게 부과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남성 혹은 남성다움의 영역에서 쫓겨난 부정항들은 여성에게 할당되었고, 그 결과 남성의 부정적 측면이 투사된 여성인물형이 다수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1989)에서도 여성은 부정항에 할당된다. 명철의 고향후배 순임은 노조활동에 열성을 보이다가 어느 날부턴가 노조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순임이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진 사무실의 박계장에게 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들이 넘볼 수 없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순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 명철은 순임에 대한 노조사무장으로서의 걱정과 이성으로서의 질투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나 순임이 박계장의 기회주의적이고도 야비한 속성을 확인하고 노조활동에로 되돌아옴으로써, 명철과 순임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순임이 되돌아오면서 한 첫 번째 행동과 대사는 여성다움의 통념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었다. 노조의 야유회 날, 약속시간이 지난 후 땀을 흘리며 뛰어오는 명철에게 다가가 순임은 땀을 닦아주며 〈오빠, 늦잠 잤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럼 내가 일찍 가서 밥도 해줬을 텐데.〉(53)라고 말한다.

노조에서의 이탈이라는 부정항에 할당되었던 순임이 노조에의 복귀라는 긍정항에 재할당되면서 취하는 첫 번째 행위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란 사실은 노동해방사상과 여성해방사상이 서로 결별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는 동일하게 피억압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만, 성별 역할분담의 논리 속에서는 각각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계급해방이 이루어지면 여성해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

기 어렵다. 남성/여성을 지배/종속의 관계에 고정시켜온 가부장체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수정 없이는 여성해방이란 요원한 것이다.

3)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유형화된 여성상이다.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남성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여성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노동소설 속의 신데렐라는 현장운동에 대한 자신의 꿈을 남성을 통해 대리 성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탕녀형의 여성은 가부장제의 여성에 대한 매혹과 혐오가 동시에 투영된 인물로서, 노동계급 남성 안에 숨겨져 있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오랜 신화를 짚어볼 수 있게 해 준다.

(1) 또 하나의 신데렐라

정화진의 「겨울, 다시 서는 길목」(1991)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심리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연순은 분명 또 하나의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는 여성이다. 연순은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적이 있지만, 현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기에 이탈한다. 그것이 연순에게는 일종의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 연순은 연인인 경태만은 현장을 지켜줄 것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경태는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연순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과는 다른 분위기에 끌려 연순을 사랑하게 된다. 인천의 공단지역에서 사랑을 싹틔운 그들이었지만, 연순이 현장에서 이탈한 뒤 경태도 현장운동의 실패가 남긴 상처 때문에 인천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상처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 만큼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순의 기대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경태는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안산의 공단지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동지적 결합〉에 대한 연순의 이상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경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때문에 경태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지고, 결국 경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위해 연순과의 결별을 선택한다.

경태의 선택을 지켜보며, 연순은 자신이 경태에게 요구했던 것이 일종의 〈보상심리〉였음을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보상심리를 갖는다는 건 네가 우려하고 있는 주체상실의 한 단면 아닐까?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히 덮어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229)라고 했던 친구 문영의 말은 연순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순은 현장운동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주체적인 인간형임을 믿고 싶어했지만, 연인에게 기대어 자기의 소망을 성취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비주체적인 인간형이었을 뿐이다.

연순의 외형은 여성투사였지만, 그 내면은 신데렐라였다. 만약 이 작품이 여성작가의 손으로 씌어진 것이라면, 연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분명 진지한 자기성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순이 남성작가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여성을 지속적으로 부정항에 할당해 온 작가 정화진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물형상화는 몇 가지 의혹을 남긴다. 작가는 연순 같은 신데렐라형 여성인물을 창조함으로써 경태가 현장을 떠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온당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연순은 경태 내면의 갈등이 고스란히 전가된, 투사(投射)로서 존재하는 인물형은 아니었을까. 그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부채감에 시달리던 연순은 경태 대신 그 외상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닐까.

(2) 남성의 성적 욕망이 투사된, 금기와 매혹 속의 탕녀

『십년간 1 · 2』(1995)는 197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10년간의 시간을 배경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각계각층의 변모과정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방현석의 야심작이다.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당신의 왼편 1 · 2』(2000)는 198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근 20년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우리사회의 진보적 역량의 성숙과 자기 성찰과정을 조망하려고 했다. 그러

나 두 장편 모두 사회사적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장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통일성과 완결성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십년간 1 · 2』는 좌익 집안과 우익 집안의 숙명적인 대결이라는 상당히 상투적인 구도도 짜여져 있다. 서익이 매국노 집안 출신으로서 유신정권에 영합하여 출세하는 인물이라면, 준호는 좌익 집안 출신으로서 자기만의 모색과정을 거쳐 입신하는 인물이다. 이 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완수와 순분이 그들이다. 완수는 『어느 돌멩이의 외침』(1984)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 수기의 주인공 유동우와 닮아 있다. 완수는 요꼬 기술자로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설정되는 것이다.

순분은 이 장에서 비중 있게 다룰 인물인데, 순분에게는 일관된 성격이라는 게 부재한다. 그녀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어떤 성격으로도 변할 수 있는 무성격 인물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순분이 만인의 연인이라는 설정에서 비롯된다. 서익, 완수, 준호는 모두 순분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순분을 놓고 서로 경쟁관계를 갖는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순분이 이 세 인물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요인도 상당 부분은 이들의 순분에 대한 이성애적 감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순분이 만인의 연인이었던 경력을 살펴보면, 그것은 식모살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순분은 가정형편상 서익의 작은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된다. 어린 순분을 서익의 작은아버지와 사촌형이 성적으로 농락하려 하자, 서익의 작은어머니는 순분에게 도둑 누명을 씌어 순분을 내쫓는다. 다소곳하기만 했던 순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다만 서익의 대학 입학식에 찾아가 꽃다발은 전하면서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만을 남기고 떠난다.

그 후 준호와 완수는 행방이 묘연해진 순분의 뒤를 쫓는다. 식모살이를 청산한 순분은 버스차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우연히 순분이 타고 있는 버스를 본 완수는 준호와 함께 순분을 찾아나서 결국엔 순분과 재회한다. 완수와 준호는 둘 다 순분에게 이성애적 감정을 느끼지만, 어린 시절의 순수

하고 아름다웠던 순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늘 지켜보고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버스차장 생활을 하던 중, 순분은 동료차장의 비참한 죽음과 관리자들의 야비한 몸수색을 경험하면서 심한 환멸감을 느껴, 그 길로 서익을 찾아가 취직을 부탁한다. 서익이 소개한 국제모방은 당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작업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서익과 순분의 관계는 다시 이어지게 된다. 이 시절의 순분은 마치 『공장의 불빛』(1984)의 저자 석정남을 떠올리게 할 만큼 『공장의 불빛』에 크게 빚지고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 기숙사의 도서실에 깊은 애정을 느끼는 장면이나, JOC(가톨릭 노동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이 장면들에서는 마치 방현석이 순분을 각성하는 여성노동자의 전형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순분의 성격은 또 한 번 굴절된다. JOC 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이 심해지자, 순분은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서익을 찾아간다. 서익의 도움으로 사무직 직원이 되어 야간부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순분이 JOC 활동을 통해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물의 형상화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순분은 자기가 바라던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수익에게 제물로 바치게 된다.

톡, 교복의 단추가 끌러지고 그의 손이 내의 위로 다가왔다. 그의 한 손으로 감싸기에는 그녀의 젖가슴이 조금 더 컸다. 소파에 머리를 기댄 순분은 꼼짝 않고 그의 손놀림에 가슴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빨라졌고 이어서 그녀의 검은 교복 단추들이 차례로 벗겨졌다. 그녀의 무릎 사이에 꿇어앉은 그는 교복 윗도리를 헤치고 내의를 걷어올린 뒤 브래지어로 가려진 두 가슴을 두 손으로 쥐었다. (중략) 그는 거칠게 브래지어마저 걷어올리고 한 손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그녀의 한쪽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분홍빛이 도는 검은 유두를 입에 삼켰다. 순분은 눈을 감았다. 그는 눈앞에 놓인 그녀의 싱그러운 유방, 위쪽

으로 고개를 약간 치켜든 그 두 개의 융기를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혀 혁대를 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며 자신이 진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순분은 생각했다. 그녀는 서익에게 빚을 지며 살아왔다. 그의 남성이 그녀의 허벅지 사이를 뚫고 몸 속 깊이 들어왔을 때 순분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며 하계의 들판을 생각했다. (2권 197-198)

순분이 지속적으로 남성성욕의 희생물이 되는 과정은 형상화 여하에 따라 여성의 육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아온 가부장체제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순분의 몸을 대하는 작가의 시각은 에로틱한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서사 속에서 순분은 언제나 무구한 처녀인 동시에 요염한 탕녀로 형상화된다. 두 남자(서익의 작은아버지와 서익의 사촌형)가 순분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식모살이 시절부터 〈커다란〉 가슴 때문에 관리자들의 성적 농락의 대상이 되었던 차장 시절, 자신의 몸에 대한 관리자들의 야릇한 평가를 경험해야 했던 국제모방 노동자 시절, 마지막으로 서익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순분의 몸은 언제나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위험한 육체였다. 그것은 순분의 몸이 무구한 처녀의 외피로 둘러싸인 요염한 탕녀의 육체였기 때문이다.

순분의 몸은 서사의 진행 과정 내내 관음증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순분이 성적으로 농락당할 때조차도 그것은 폭력의 기호가 아니라 성의 기호로 해독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작가의 관음증적인 시선과 공모했을 때, 순분의 몸을 위험하고도 에로틱한 육체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작중 남성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순분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순분은 공히 만인의 연인이 되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시선은『철강지대』(1991)의 〈계집〉에 대한 형상화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계집〉은 백상중기의 사장인 백준회의 정부이다. 그녀는 자본가 계급의 도덕적 타락상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인물인데, 그 고발은 주로 〈계집〉의 음탕한 육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라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계집〉이라는 여성비하적인 명명에서 나타나듯이 〈계집〉은 일차적으로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러나 서사가 응시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계집〉은 남성중심주의가 허구화한, 포르노그라피적인 상상력이 동원된 에로틱한 육체의 전형이다.

> 지금 백준회의 심사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잔주름이 하나둘 잡히기 시작하는 마누라가 들어찰 구석이 털끝만치도 없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처발라도 그녀는 이미 40대의 중년이 아닌가. 같은 40대라 해도 백준회 자신과는 얼마나 다른가. (중략)
>
> 계집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잠옷을 걸치고 있었다. 계집이 안에 입고 있는 것이라고는 치부만 가린 검정색 팬티뿐이었다. 암갈색의 유두가 선명하다. (중략)
>
> 백준회는 계집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잠시 중심을 잃은 계집의 몸뚱이가 소파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계집은 개의치 않는다. 무릎걸음으로 달려들어 더욱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
> 그래 무릎을 꿇어라! 온몸을 다 바쳐 경배하라! 만인의 신이 될 너의 하늘 같은 주인이니라. 위하여! 하하하하!
>
> 적진에 우뚝 선 정복자의 희열에 들떠 백준회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119-121)

이처럼 자본가 계급의 도덕적 타락상을 고발하는 도구로 동원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젊은 여성의 에로틱한 육체이다. 자본가 계급의 탐욕스런 성격이 성애의 장면을 통해 고발될 수 있다면, 왜 그 도구로 자본가 남성의 주름진 몸이나 기름진 배,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망의 배출이 동원되지는 않는 것일까? 위의 인용문에서 〈계집〉의 몸은 정복의 대상이다. 정복하는 남성/정복당하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성애의 구도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 길들여진 에로틱한 육체를 정복하는 쾌감이 비단 백준회의 것만이 아니라 작가 정화진의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서사에 공모하는 독자 모두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

자본가 계급의 도덕적 타락상을 고발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도덕적 우위를 입증하는 작업은 노동소설의 한 측면을 이룬다고 할 만큼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의 시각으로 그려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이병훈은 정화진이 달성한 자본가 계급의 "도덕적 타락상의 연출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다."[20]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타락상의 연출이 왜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숙고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한 방식은 여성에게는 언제나 부정항을 할당해 온 가부장체제의 여성 지배전략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소설 작가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문학도 여성이 배제된 반쪽의 문학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정화진과 방현석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노동해방의 〈내일을 여는〉 투사' 형이 있다. 이 유형의 여성인물은 다시 '동지로서의 아내' 형과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으로 나뉜다. '동지로서의 아내' 형은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관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진지한 성찰의 결과로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누이로서의 여성투사' 형은 남성작가의 누이 콤플렉스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해방에 대한 적극적인 전망을 열어가는 가운데 창조되었다.

둘째, '남성노동자의 갈등이 투사된, 흔들리는 동지' 형이 있다. 이 유형의 여성인물들은 남성작가의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창조된다. 각성된 남성노동자의 내면갈등이 각성되지 못한 여성노동자에게로 투사되면서, 여성인물들은 긍정항/부정항의 이분법 중 부정항에 할당되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과 관계

20) 이병훈, 앞의 글, pp.88-89

가 깊다.

셋째, '노동운동 바깥의 신데렐라와 탕녀' 형이 있다. '신데렐라' 형은 현장출신 남성 노동자 작가의 투사(投射)로서 창조된 인물형인데, 남성 안의 부정적 측면이 타자로서의 여성에게 이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탕녀' 형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매혹과 혐오라는 양가감정이 투영된 인물형으로서, 여성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과 결합되면서 창조된다. 이러한 '탕녀' 형은 여성이 서사가 응시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만 텍스트에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여성상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여성상이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 속에서 침묵당하는 여성상이다. 가령, 정화진의 「쇳물처럼」(1987)은 "1980년대가 생산해 낸 가장 우수한 단편에 해당할" "전범적 작품"[21], 혹은 "해방 후 우리 노동자계급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 계급의 운명과 역사적 행로를 객관화해 낸 최초의 소설적 성과물"[22]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성인물은 부재한다. 마찬가지로 방현석의 「내딛는 첫발은」(1988), 「지옥선의 사람들」(1990), 「또하나의 선택」(1991)에도 여성인물은 부재하거나 있다고 해도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

텍스트 속에서 여성이 침묵당하는 현상은 여성들이 "물적 토대를 다루는 노동력 및 출산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화적 차원"[23]에서의 소외를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소설 속에서 여성은 침묵당하거나, 침묵당하지 않더라도 오직 남성의 입을 빌어서만 말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긍정적인 여성상은 노동해방에 복무하는 여성상밖에 없었고, 나머지 여성상은 남성의 내면 갈등이나 부정적 속성, 성적 욕망이 투사(投射)된 결과로서만 형상화되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여성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수기

21) 신승엽, 「소시민적 죄의식을 넘어 현실주의의 큰 길로」, pp.186-187
22) 김명인, 「먼저, '전형'을 고민하자」, 『창작과비평』 1989 겨울, p.179
23) 조혜정, 「생명존중의 사회를 향한 여성해방운동」,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 지성사, 1988), p.341

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노동문학의 출현 이전, 1980년대 초반에 이미 『빼앗긴 일터』(장남수, 1984), 『서울로 가는 길』(송효순, 1982),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한윤수, 1980), 『공장의 불빛』(석정남, 1984),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나보순 외, 1983) 등과 같은 여성 노동수기가 선보였었다. 87년 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나온 수기들이나[24] 남성노동자들의 수기들을 제외하더라도[25], 이처럼 다수의 여성 노동수기가 80년대 노동문학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남성작가의 노동소설이 안고 있는 여성 형상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필자 : 경희대 강사

24) 김미영, 『마침내 전선에 서다』(노동문학사, 1990)
이소라 · 민향숙, 『이땅의 딸로 태어나』(죽산, 1988)
이은영, 『민주깡통을 아십니까』(돌베개, 1988)
정인화, 『강이 되어 간다』(노동문학사, 1990)
추송례, 「어김없이 봄은 오는가」, 『실업일기』(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2001)

25) 윤기현, 『내땅을 딛고 서서』(일과놀이, 1983)
이판돌 외, 『외쳐라, 천만 노동자여』(새길, 1988)
유동우, 『어느 돌멩이의 외침』(청년사, 1984)

참고문헌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_____, 『당신의 왼편 1 · 2』, 해냄, 2000

_____, 『십년간 1 · 2』, 실천문학사, 1995

_____,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작은책, 1999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정화진 외, 『쇳물처럼/성장/살아있는 무덤 외』, 동아출판사, 1995

정화진, 「겨울, 다시 서는 길목」, 『서울, 그 어느 쓸쓸한 사랑』, 지리산, 1991

_____, 「모정의 그늘」, 『그 무더웠던 여름날의 꿈』, 민맥, 1992

_____, 「사춘기」, 『창작과비평』1989 가을호

_____, 『철강지대』, 풀빛, 1991

_____, 「(성장기) 문학을 해방의 무기로 삼고저」, 『새벽출정』, 녹두, 1990

강미숙 · 김성희, 「현단계 노동문학의 여성문제 인식」, 『여성과사회』1990 창간호

김경원, 「우리 시대의 노동소설을 위하여」, 『문예중앙』1990.9

김명인, 「먼저, '전형'을 고민하자」, 『창작과 비평』1989 겨울

김명환, 「'위기'를 극복할 참된 문학적 실천의 기대」, 『문예중앙』1991 여름

김선건, 『1970년대 이후 노동소설에 나타난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2

김열규 外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이구, 「염결함, 뜨거움, 과학주의 - 80년대 노동소설과 방현석의 소설」, 『채영주 · 공지영 · 방현석』, 동아출판사, 1995

김재용, 「비장함에 새겨진 거인의 발자국」,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백남천, 『노동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송희복, 「냉담한 시대의 진보적 열정」, 『정화진 · 김한수 · 김하기』, 동아출판사, 1995

신승엽,「노동문학의 현단계」,『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신승엽,「소시민적 죄의식을 넘어 현실주의의 큰 길로」,『사상문예운동』1990 봄
신승엽,「현단계 노동소설의 경향과 발전 전망」,『사상문예운동』1991 여름
우찬제,「계급 · 민족 · 권력」,『욕망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윤지관,「폭력시대와 소설의 리얼리즘」,『오늘의 소설』1989 상반기
이 훈,「노동자 소설을 위하여 -「새벽출정」을 중심으로」,『문학과비평』1989 봄
이병훈,「노동장편소설의 최근 변모와 성과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한길문학』1991 여름
이병훈,「현단계 노동문학의 새로운 모색」,『실천문학』1992 여름
이재현,「희망과 연대로서 노동자계급의 삶과 해방」,『실천문학』1992 여름
임헌영,「노동문학의 새 방향」,『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조남현,「노동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신동아』1985.7.
조정환,「노동자문학의 현단계와 전망」,『민주주의와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
조혜정,『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예출판사, 1988
현준만,「노동문학의 현재적 의미」, 김사인 · 강형철 엮음,『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팸 모리스,『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옮김, 문예출판사, 1997

Abstract

Women's types in the labor literature
centering on the Jeong hwa-jin's and Bang hyun-seok's novels

Lee, Jeong-Hee

This paper studies women's types in the labor literature centered on the Jeong hwa-jin's and Bang hyun-seok's novels. As a result of this study, women's types in the labor literature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at of fight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a movement toward the emancipation of labor. This type is created in prospect for the emancipation of labor.

The second type is that of irresolute associates who are in a constant conflict with themselves. This type reflects inner conflicts of man laborers.

The third type is that of women who are indifferent to the emancipation of labor. This type is subdivided into two subtypes. One is the type of a woman dependent on a man like Cinderella and the other is the type of a woman of easy virtue. This type is created as the result that the desires of male characters were projected into female characters.

Thus, there is only one positive type of a woman in the labor literature. That's the type of a woman fighting for the emancipation of labor. The rest are negative types.

key word : labor literature, Type of fighters, Type of irresolute assocrate, Type of indifferent to labor.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